

한·독 기술협력 사무소 개관

생기원-프라운호퍼연 합작 ... 연간 2000만달러 절감효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세계적인 응용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한·독 기술협력사무소가 7월27일) 개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OEX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 박규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종구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바르네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총재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독 기술협력사무소는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독일 방문시 독일측과 체결한 공동연구계약의 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정보 및 전문인력 DB 구축,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컨설팅, 국내기업과 프라운호퍼연구소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중개·알선 등 한·독 산업기술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독 기술협력 사무소 개소는 핵심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려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 세계적인 응용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인프라를 구축하고 즉시 기업현장으로 이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플라스마기술, 박막 및 표면기술의 국내이전을 통해 연간 2000만달러 이상의 기술이전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는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응용기술연구소로 부품 소재, 생산기술, 제조공학,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환경, 의료 등 산업분야별로 특화된 48개 연구소들의 복합체이다.

독일의 3대 국책연구협회 중의 하나로 정부가 2000억원(37%)을 지원해 1949년 설립됐다.

연구원은 총 7200명으로 박사급 2376명(33%), 석사급 3456명(48%), 지원인력 1368명(19%)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위 연구소별 평균인원은 150명이다.

연구계약액은 총 8360억원으로 단위연구소당 평균 174억원, 연구원 1명당 평균 9280만원이다. 계약액은 70%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 연구재원 비율은 위탁 85%(7150억원), 정부지원 15%(1210억원)를 나타내고 있다.

한·독 기술협력 사업 투자계획

(단위 : 100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총사업비	942	808	1,107	836	998	4,771
- 산자부	400	416	568	200	200	1,784
- 생기원	498	205	293	352	449	1,796
- FhG	125	187	246	284	349	1,191

< Chemical Daily News 2001/07/30 >